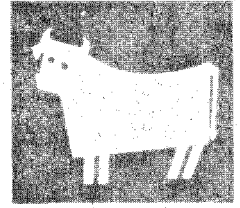


축산업계 동향



계란, 수입관세율 80%로 —국내 계란가격 안정위해, 수입제한품목으로—

정부는 11월 17일부터 계란(卵粉) 수입관세율을 80%로 대폭인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의 수입자동승인품목에서 수입제한품목으로 바꿔 수입을 억제토록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제빵업자들이 국내 계란을 외면 에그파우더 형태로 수입해 국내계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요청에 의해 재무부와 상공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이 80%로 인상됨에 따라 이제까지의 수입가격(생계란 환산 개당 관세율 포함)

24.73원에서 34.24원으로되 국내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된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지난 8월말까지 수입된 계란은 3만 3천 6백 83kg으로 국내 연간 총소비량 42억 3천 1백만개의 0.064%에 해당하는 미비한 것이나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 큰차질이 있다는 것.

내년부터 수입제한품목이 됨으로써 계란수입은 농수산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수입계란 파동은 일단락 되게 되었다.



육계수매가 인하

—12월 1일부터 400원으로—

축산진흥회(회장 : 함만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양계생산농가보호를 위해 육계수매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시중가격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매가 450원으로부터 시작한 금번 수매비축은 10월 30일 550원, 10월 27일 480원에 이어 12월 1일부터는 400원으로 인하여 수매비축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본회및 농협에서 물량배정을 하여 축진에서

계획된 물량을 수매비축하는 이번 비축을 위한 담당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의 하숙생활과도 같은 수고에도 아랑곳없이 육계소비는 급격히 위축 물량은 체화되고 가격의 상승이 어려워 이번 수매가가 인화된 것이다.

동방유량 일시금전액지급 요청

—노조, 직권조정을 제기—

화학노동조합 동방유량지부는 노사간 합의한 일시금 4백% 가운데 일부를 지급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정당국에 직권조정을

축산업계 동향

제기 했다.

동방유량은 77년부터 매년 4백%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왔는데도 올해는 경영부실이라는 이유로 3백%만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고해 옴으로써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동지부는 방계회사의 증설로 자금이 부족되는 것이지 경영부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유(原乳) 가격 조정건의

—낙농업계, 생산비 올라 경영압박—

낙농업계는 2차에 걸친 유가인상에도 제반생산비가 지난해에 비해 29.5%가 상승, 낙농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2백9원(유지방함량 3.4%기준)인 원유가(原乳價)를 최소생산비가 보장되는 2백71원 이상으로 인상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1월 13일 한국 낙농협회(회장: 全杰相)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원유가격 조정건의서에 따르면 최근의 낙농경영비가 지난연초 원유가 조정시 기준으로 삼았던 78년 8월에 비해 인건비는 52.6%, 조사료비가 41.7%, 제반농가 구입가격은 12.3%등으로 상승하여 순수생산비만 22.9%증가했고 또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부산물 수입이 15.2%가 감소되므로써 총생산비는 29.5%가 증가 생산비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초지 3천ha 조성

—15억원 용자지원 예정—

농수산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에 대비 축산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초지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초지법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초지조성기반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을 용자지원 3천ha의 초지조성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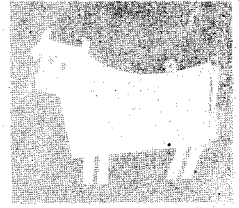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각도 도지사로 하여금 초지조성희망농가를 선정, 용자 지원토록 하되 초지조성규모를 최소한 10ha이상으로 하여 대형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용자지원할 자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용자조건은 연리 12.5%, 3년거치 2년상환의 중기성자금이다.

농수산부관계관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등 축산물의 수요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연차적으로 초지조성 작업강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금년도에 10억원을 용자지원, 강원 충남북 제주 전남북 경남북등 8개도에 걸쳐 2천ha의 초지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금년도 각도별 초지조성 면적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ha 천원, 괄호안은 지원액) ▲ 강원=255(127,500) ▲ 충북=65(32,500) ▲ 충남=131(65,500) ▲ 전북=135



(67,500) ▲ 전남=367 (183,500) ▲ 경북=105
(52,500) ▲ 경남=37 (18,500) ▲ 제주=905
(452,500)

사료곡물 현지구매

—축산진흥회, 美에 주재사무소등 개설—

축산진흥회는 사료곡물 수입물량의 급증에 따라 미국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의 간접구매에서 탈피, 현지 직접구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축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료수입량이 급증하는 한편 각국의 사료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가격 물량, 입찰시기등을 현지에서 직접판단,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입사료의 계약, 운송에 있어서, 분쟁이 자주발생 수입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속한 현지중재해결도 요청된다는 것이다.

축진은 이를 위해 세계 곡물시장이 있는 미국 시카고에 이달중 주재사무소를 개설하고 각종 사료곡물정보및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사료곡물의 현지구매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돈경기 호전될 전망없어

—사육두수 계속증가 추세—

돼지가 앞으로 계속 말썽을 부릴 전망이다. 농수산부가 밝힌 9월말 현재 돼지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육두수는 지난 6월대비 9만 5천마리가 증가한 3백27만 3천마리, 사육가구는 2만 7천가구가 줄어든 80만 5천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마리미만의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줄고있는 반면에 50두 이상의 전기업 양돈농가는 1천 1백가구가 늘고 사육두수도 17만 9천마리가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는 조속한 불황타개를 위해 전기업양돈가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에 임할 것은 물론 소비촉진에도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업자는 막대한 기대속에 母豚을 팔고 다시 새끼 암돼지를 입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돈불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이고 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제 1 차 정기총회 개최

—회장에 윤안민 영남사료대표피선,
관계당국에 건의안 채택도—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제 1 차 정기총회를 11월 13일(화) 오후 서울시 공덕동소재 호텔서울가든에서 58개 회원사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978년 9월 11일에 창립한 본협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신임회장에 윤안민(동산사료, 영남사료대표)씨를 선출했으며 5개항에 이르는 건의안도 채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설하농수산부 축산국장은

축산업계 동향



〈尹安民 한국단미 사료협회장〉

강연을 통해 현재 축산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히고 단미사료의 어려움에 언급 앞으로는 어분업체, 대두박업체, 배합사료업체 3자협회가 이루어져 적정한 물량수급이 이루어

어져야한다고 하며 이를위해 정부는 3자 협의를 적극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부는 축산진흥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관측업무를 실시 가축의 증식상태와 사료생산상태를 관측, 생산자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알려 생산자 스스로 생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는 감사보고와 부의안전심의를 거쳐 심임회장단및 감사 이사선출을 하였으며 선출된 심임회장의 주재로 80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통과시키고 △ 신규등록업체의 협회추천경유(제조업및 성분등록) △ 각 제조업체발행 성분 보증표를 협회발행 성분 보증표로 대체부착 △ 주무부장관추천사항의 원료및 기자재도입의 협회경유 추천 △ 단미사료 품목별 및 지역별 허가제 △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 대체사용하는 경우 필수아미노산 첨가표시 등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윤안민(영남사료)
- 부회장 : 이중희(한국특수사료), 이남재(대일

사료)

- 감사 : 강대준(대흥사료), 최병규(남양어분),
- 이사 : 유동준(상근전문이사), 한계호(미성사료), 유창순(한국화학<주>), 장지식(홍창산업), 박용화(고려사료), 박균용(삼천포수산<주>), 이구형(협동사료), 이수남(삼흥산업), 양효진(대유사료<주>), 김항태(삼흥물산), 이수영(동양화학), 권대호(동신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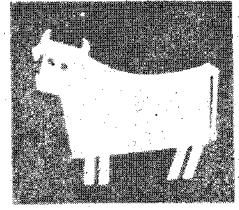
58개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한국 단미사료 협회 정기총회

농수산부 비계없는

돼지고기 판매의무화

—근당 가격도 9 백원으로 인하—

농수산부는 돼지고기소비를 촉진시키기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각도청소재지등 15개 도시의 정육점에서는 비계없는 돼지고기만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산매가격을 근당(600g) 900으로 판매토록했다.

농수산부는 계속 하락되고 있는 돼지고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촉진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1월 9일부터 각도축장에 비계제거장치를 설치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박피기가 없어 비계있는 돼지고기 판매를 사실상 묶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우성·협진등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박피기를 수입,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비계없는 돼지고기 판매를 의 무화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부는 11월말까지 계몽위주의 단속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비계있는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할 방침이다.

그런데 요즈음 서울에서는 일일 2천 2백 마리분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비계를 제거하는 경우 앞으로 소비량은 13%가량 증가될 것으로 농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 계통출하

— 출하농민에게 선도금 지급 —

농협중앙회는 연말연시에 수요가 크게 늘 어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 부산·대전·인천등 6개도시를 대상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사과·배·감귤등 6개품목 3억 원 어치를 농협조직을 통해 직판키로 했다.

농협이 마련한 연말연시 농축산물 계통출하 확대 특별추진대책에 따르면 이기간중 △

쇠고기는 1일 한우 4백마리씩 2만 8천 마리 1백70억원 △ 돼지고기 1일 8백 50마리씩 5만 9천 5백마리 60억원 △ 달걀은 1일 20만개씩 1천 6백만개 6억 5천만원어치 등의 사과·배·감귤 총 6억 5천만원 어치를 각각 출하 직판키로 했다.

농협은 이를위해 주산지계통출하를 확대하고 11개공판장 및 1천 6백개 산지판매장, 1천 2백개 축산물판매점등을 통해 직판하는 동시 이동순회판매를 추진하고 포장개선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등 특별추진대책을 마련했다.

계란 장기저장 유도

— 농수산부, 저온 시설자금 지원 —

농수산부는 계란값을 연중평준화,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저장을 유도 시설자금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해 줄 방침이다.

농수산부 당국자는 올해 계란생산 예상량은 42억개로서 당국의 소비절약시책 불경기 여파로 계란소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경향이 뚜렷해 가격폭락현상이 불가피하고 직접,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계업자들로 하여금 저장시설을 갖추어 비축토록 하기위해 저온저장고설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 동향

배합사료생산 작년동기보다 51.2% 증가

— 10월중 생산은 감소추세로

관련업계 고전—

10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3백26만 5천76t으로 작년동기 2백15만8천9백54t보다 51.2%가 증가했다.

농수산부가 집계한 10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옥추 27만6천9백52t △산란 94만3천6백45t △육계 50만1천2백98t 등 양계용이 1억72만1천8백91t에 달했으며 △양돈사료가 96만7천9백79t △낙농사료 35만9천1백27t △한우비육사료 21만4천3백87t △기타 1천6백92t 등으로 양돈용 배합사료는 작년동기실적 37만3천11t보다 무려 2.5배가 늘어났으며 낙농사료는 39.5%, 비육사료는 13.7%, 그리고 양계용은 28.7%(옥추 10.5%, 산란 32%, 육계 34.7%)가 각각 늘어났다.

한편 지난 10월중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32만8천9백28t으로 9월중 생산량 32만8천

9백28t보다 2만3천5백88t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같은 원인은 최근 양돈과 양계업이 가격폭락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배합사료 사용량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료업계는 축산업의 신장발전에 따라 배합사료수요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호황을 누렸으나 양축업계가 울타러 큰 타격을 받게됨에 따라 연쇄반응으로 사료대금회수가 늦어져 자금압박이 심해지고 재고과다로 사료업계는 물론 대두박메이커인 동방유량도 체화현상을 빚어 크게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태지6·수태지4의 비율로 수매

— 도축시 검사원이 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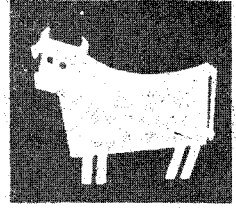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돼지생산감축을 조절하기 위해 축산진흥회 수매는 물론 도축장에서도 반드시 암태지6:수태지4의 비율로 잡도록 조치했다.

농수산부당국은 과잉으로 인한 돼지값폭락

79년도 월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

단위: M/T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옥추	29,330	31,394	35,178	32,860	34,602	27,074	23,973	20,818	20,955	20,767
산란	85,511	86,457	97,095	98,239	103,286	93,250	89,360	91,536	101,383	97,524
육계	50,588	54,704	56,698	53,488	53,215	46,327	47,435	44,905	49,221	41,717
계	165,429	172,555	191,971	184,587	184,103	166,651	160,768	153,258	171,559	160,008



을 막기위해 번식돈감축을 행정적으로 지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사육 현황조사결과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밝혀져 축산진흥회에서 수매할 때 암돼지6:수돼지4의 비율로 하고 도축장에서도 이와같은 비율로 도축을 하도록 지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같은 규정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확인조사토록 했다.

농협, 배합사료 성분검사거쳐 공급

—인천공장을 검사소로 지정—

농협중앙회는 불량사료를 근절하고 양질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협배합사료공장과 일반배합사료공장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협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인천배합사료공장을 사료검사소로 지정, 검사에서 합격된 양질사료만 농협계통조직을 통해 양축농가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일반배합사료와 농협사료는 물론 사료제조용 원료를 모두 검사하고, 년 4 회 이상의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하며, 검사내용의 폭을 넓혀 가소화 단백질·지방질등을 비롯한 필수영양소와 협잡물함유도를 정밀검사해서 성분미달사료와 조악한 불량사료의 판매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그런데 배합사료는 농협을 포함, 일반제조회사까지 전국 78 개공장에서 연간 3 백30여 만t이 생산돼 자체검정만을 거쳐 공급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량 점차 감축

—한우보유 크게 늘어나—

농수산부는 내년에 쇠고기 2만5천t 을 수입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한우보유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내년에는 올해 2만8천t (정육기준) 보다 5천톤을 줄여 2만5천t 정도를 수입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한우보유두수 1백67만 두에 비해 금년 6월말현재는 1백73만두로 늘어났으며 금년말에는 1백78만두로 늘어날것으로 농수산부는 추정, 한우증식기반을 다지기 위해 쇠고기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유지시키며 쇠고기수입물량을 감축함으로써 증식의욕을 높여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수준인 4만5천두를 농가에 입식시킬 계획이다.

젖소 4천두 내년으로 이월도입

—농수산부, 우유수급사정 감안—

농수산부는 내년에 수입하도록 되어있는 젖소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수입된 젖소는 계획 3만두가운데 2만2천두로서 나머지 8천두중 4천두는 이미 선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도착하도록 하고 4천두

축산업계 동향

는 내년으로 이월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 젖소 도입두수를 이같이 감축조정한 것은 우유의 수급사정과 젖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내년 축산진흥기금 대폭감축

—올해보다 3백여원 줄여—

내년도 축산진흥기금 운용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내년 축산진흥기금 운용액은 7백72억 5백만원으로 이는 금년 운용계획 1천75억 1천만원보다 3백 2억 9천 6백만원이나 줄어든 것인데 이같이 감축책정한 것은 쇠고기등 육류수입감축이 불가피한데다 옥수수등 사료원료수입에 따른 가격차액이 없어져 조달 부문에서 예산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년 축산진흥기금 조달계획을 보면

○축산물판매부가금 77억원 (79년도 64억 4백만원)

○수입축산물 판매수익금 2백 4억 2백만원 (79년도 3백49억 5천 8백만원)

○기금운영수익금 70억 1천 7백만원 (79년도 62억 1천 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4백20억 8천 6백만원 (79년도 5백31억 3천 5백만원)

으로 짜여져 있는데 수입축산물 판매수익금에서 1백45억 5천 6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에서 1백10억 4천 9백만원, 사료원료수입가격 차액66억 9천 3백만원, 마사회 납입금 1억원등이 각각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축산물판매부가금 12억 9천 6백만원과 기금운영수익금 8억 6백만원뿐이다.

농수산부, 농협판매기능 조정

—축산물공판장 축진에 넘겨—

농수산부는 축산물수급및 가격안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업무를 일부 조정, 축산물공판장및 직매장운영관리권을 축산진흥회에 넘기기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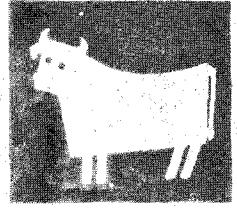
농수산부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을 축산진흥회로 이관시킨다는 방침아래 자산평가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축산물직매장관리업무도 축진에 맡겨 육류수급조절기능을 강화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농협의 농산물 직매업무도 조정, 농안사업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

대만, 돼지육종센터 건립계획

—13억들여 유전능력 개량을 위해—

대만의 농업개발위원회는 앞으로 3년동안에 걸쳐 미화 277만불의 예산을 동원 한개소



에 성빈돈 450두와 중모돈 30두 규모로 2개소의 돼지육종센터를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만의 돼지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유전능력 개량을 위주한 돼지 육종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 돼지육종센터의 운영에 의한 유전능력 개량으로 대만전체

의 돼지고기 생산성이 매년 3%씩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며 이 계획이 실현된 5년후에는 시판체중에 이르기 까지에 소요되는 육돈사육기간이 10일 단축되어 두당 25kg의 사료가 절감, 대만 양돈업계에 연간 미화 2,779만\$의 사추가 순수익이 발생하게 되리라한다.

옥수수가격 내년봄까지 큰변동없을듯

— 급년 기록적대풍, 명년엔 경작제한도 철폐 —

미국의 급년도 옥수수생산은 기록적이던 작년보다도 7%가 많은 1억 9천 2백 68만톤으로 예상되며 전세계곡물생산도 사상두번째의 기록인 15억 9백만톤에 이를것 같아 곡물, 특히 옥수수의 공급상황은 아주 좋은 편이다.

따라서 옥수수가격은 명년봄까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을 기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동락요인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USFGC가 주선한 한국옥수수 가공부문 방

미국의 주요곡물 및 대두수급상황

(단위 : 100만톤)

	옥 수 수		사 료 곡 물 ※		소 맥	대 두	대 두 박
	(78/79)	(79/80)	(78/79)	(79/80)	(79/80)	(79/80)	(79/80)
공 급	207.9	225.3	258.8	275.0	82.7	65.0	23.736
이 월	28.0	32.6	41.5	45.8	25.2	4.8	0.25
생 산	179.9	192.7	217.3	229.2	57.5	60.2	23.482
수 요	175.3	189.0	213.0	227.6	61.6	54.7	23.4
국내	121.0	125.5	152.8	156.5	23.5	32.2	17.05
사 료	106.4	110.5	133.1	136.5	4.7	—	—
식 용, 기 타	14.6	15.0	19.7	20.0	18.8	—	—
수 출	54.3	63.5	60.2	71.1	38.1	22.5	6.35
이 월	32.6	36.3	45.8	47.4	21.1	10.3	0.336

※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연도 : 10월~9월

축산업계 동향

미시찰단이 최근 현지사정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 한바에 의하면, 미국은 금년에 또다시 대풍을 맞아 전년대비 사료곡물 6% (옥수수 7%, 수수10%) 소맥17%, 대두20%의 증수가 예상될뿐 아니라, 금년10월 1일 현재의 재고역시 전년보다 사료곡물 전체로11% (옥수수16%) 증가되어 79/80의 수요가 7.8% (국내수요 3.7%, 수출수요17%) 늘어난다 해도 명년10월 1일 이월량은 금년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것 같다.

또한 미농무성은 1979년에 사료곡물경작 10% 감축 했던것을 1980년에는 모두 식부토록 경작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6%의 식부증가가 예상되며 평년작만 되어도 명년 생산성도 매우 크게 될것이다.

11월 1일 현재 미농무성이 예측한 79/80 옥수수 가격은 현지 농민가격으로 톤당 93불~104불이고 80/81의 진폭은 87불~124불인바 이는 현재 수준에서 6% 하락 또는 35% 상승함을 뜻한다. 79/80 옥수수 톤당 목표가격 (소득지지선)은 87불 (78/79에는 83불), 유통자 가격은 79불이다.

미농무성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주요 곡물 및 대두수급상황은 표와 같다.

農開公, 자본금 1백억으로 늘려

— 내년 투융자 2백58억원 규모 —

정부는 내년에 농어촌 개발공사 (사장 陳鳳鉉)

에 14억원을 투입, 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증가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 법정자본금이 1백억원으로 되어있으나 그동안 정부가 투입한 출자금액이 86억원에 그쳐 농개공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위해 내년 예산에 14억원을 계상 불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개발공사는 내년에 각종 투융자 사업을 확대 투자 1백12억 1천만원, 융자 1백80억 5천 6백만원 등 2백58억 6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IBRD 차관자금 66억 9천 1백만 원을 전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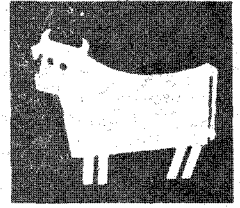
그런데 올해 농개공의 투융자 규모는 1백 4억 5천만원 (계획)에 그쳤다.

가축약품 도매상도 불황

— 축산업계의 불황에 따라 —

작년까지만해도 양계 및 양돈경기의 호조로 비교적 호황이었던 가축약품 도매상들이 금년들이 양돈을 비롯한 양계 등 축산업계의 불황에 따라 운영에 큰 압박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구의 가축약품 도매상들은 대구지역의 대구축산의 가축약품 도매상 통합성공을 예로 이지역의 5대 가축약품도매상 (삼진가축약품 (정진섭), 현대가축약품 (김승낙), 경인가축약품 (홍정표), 동화약국 (최재경), 중



양가축약품(김부남)은 통합하여 중양상사로 발족하고 과거 재고를 모두 메이커에 반납 새 출발을 시작하였으나 업계의 불황과 대금회수의 지연등으로 출발과 함께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업계의 불경기는 이제 양축가 뿐이 아니고 가축약품도매상, 제조회사, 단미사료, 배합사료업체에까지 경영을 압박해 가고 있다.

과학축산 신공장 준공

— 11월19일부터 본격적가동개시—

과학축산(대표:이태일의 2인)은 창립 2돌을 맞아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현대적규모와 완벽한 시설을 갖춘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다.

당공장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금번 11월 15일에 준공을 마치고 11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생산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에 종계(P.S) 수출 개시

—한협가금농장, 내년부터 Cobb종계—

한협가금농장(대표:박준영)은 그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GPS를 수입하여 국내에 PS를 분양하여 왔으나 80년부터는 일본에 종계(P.S)를 수출하게 되었다. 수출량은 연간 약 4만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선 1월 9일 3,500수와 2월 9일 9,000수는 선적일자

가 확정되었고 수출신용장도 이미 도착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Cobb의 GPS농장이 없어 이번 수출이 성공할 경우 앞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수출가격은 국내에서 Cobb PS를 수입하는 국제가격보다도 높게 결정 되었다고 한다.

상록회 조직 운영

—한협가금육종농장,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해—

한협가금육종농장(대표:박도현)은 농장종업원들로 상록회를 조직케하여 종업원 스스로 복리증진을 위해 상록회 정관에 따라 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록회는 회원각자가 봉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 금산의 농장에서 지대등 부산물을 상록회에 제공, 상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상록회에서는 기금이 조성되는대로 별도로 양돈 낙농등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양약품,

나이아신 아미드 합성개시

—동물약품업계에서는 최초로—

중양약품(대표:김무진)은 과학적인 사료첨가제 비타민B 그룹의 나이아신 아미드

축산업계 동향

(Niacin Amide)를 합성하는데 성공,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획득 12월 중순부터 국내시장에 출하 할 예정이다.

동사는 이를 위해 10톤 규모의 시설을 완공 미국의 원료수입원으로 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인체약품업계에서는 오래전에 합성 시판을 하고 있었으나 동물약품업계에서는 78년도에 완제품 25톤을 수입하였는데 이제 국내에서 합성시판하게 됨으로서 막대한 외화 절감을 하게됐다.

한국-캐나다 곡물심포지움 성료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정부와 국내관련 산업체에 캐나다 곡물산업의 넓은이해와 국내조건에서 어떻게 캐나다 곡물이 이용될 수 있는가를 주지시키기 위한 한국-캐나다 곡물심포지움이 농수산부의 지원아래 캐나다 국제곡물연구소, 한국사료협회, 한국제분공업협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 까지 프라자 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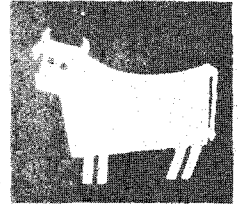
캐나다정부와 캐나다소맥위원회가 잠재 및 기존고객들에게 곡물관래, 취급 및 기술분야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캐나다 곡물산업에 대한 안내와 채종가공, 영양과 사료배



〈국내 관련업계의 관심을 주목시킨 한국-캐나다 곡물심포지움〉

합, 사료공장경영 및 곡물저장과 사료공장의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과 한국의 사료곡물 이용실태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나눈 이번 심포지움에는 국내 학계및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을 주목시켰다.

특히 본 심포지움은 본회의, 제분부문 기술분과회의, 사료부문 기술분과회의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연사 10여명이 31개 부문에 걸쳐 강연을 실시했는데 연사중 N. C. Young (Feed-Rite <주> 대표) 씨는 「캐나다의 사료곡물의 이용」에서 산란기간 동안의 산란계의 산란능력은 최초 20주간의 성장상태에 달렸다는 연구보고를 발표하며 사료배합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역설하고 또한 브로일러사료는 소맥, 옥수수과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지방을 첨가한 고밀도 영양소사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기간중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캐나다 곡물심포지움 소개
- 캐나다의 곡물업
- 한국의 농업
- 캐나다 곡물 위원회
- 캐나다 소맥위원회
- 캐나다의 곡물유통과 운송
- 캐나다의 주요곡물 및 유체의 등급
- 캐나다 곡물업에 있어서의 품질관리
- 한국제분공업의 현황
- 한국 배합사료 공업의 현황
- 캐나다의 축산업
- 캐나다의 유채산업
- 캐나다산 소맥, 귀리및 보리의 판매
- 캐나다산 소맥의 신품종개발
- 등급저하 요소들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의 제분 공장 경영
- 캐나다 소맥의 제분
- 한국의 제면·제빵업계의 과거, 현재, 미래
- 제빵공정
- 캐나다산 소맥의 제분특성
- 제빵에 있어서 첨가제의 역할
- 한국에서의 복합분연구
- 캐나다의 배합사료제조
- 캐나다의 유채착유
- 배합사료의 기초영양 및 원리
- 캐나다의 사료곡물의 이용
- 사료곡물의 사료적가치에 관한 연구
- 사료공장 경영
- 곡물저장
- 배합사료 품질관리 및 제조
- 캐나다 배합사료 산업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부규정 (캐나다 배합사료법)

각시도별 부화장및

종계장 현황 조사

— 총 입란능력 2천 7백개 상당 —

농수산부는 79년 8월 현재 각시도별 부화장 및 종계장 현황을 발표 하였다. 총 306개의 부화장에 부화기 대수는 1,721대로 입란 능력은 26,936,496개로 부화기 1대당 입란 능력은 15,652개로 밝혀졌다.

종계의 경우 부로일러가 650,715수이며 산란계는 350,750수 겸용종은 55,780수로 각각 나타났다.

시도별 부화장 현황(총괄)

행정구역	부화장수	부화기대수	부화종능력 (1회입란)	부화기 대당능력
	개소	대	대	개
서울	13	99	1,201,000	12,131
부산	5	35	530,000	15,143
경기	77	652	10,728,156	16,454
강원	17	56	958,000	17,107
충북	10	57	706,920	12,402
충남	58	334	5,147,060	15,410
전북	59	124	2,996,000	24,161
전남	7	35	722,440	20,641
경북	35	164	2,294,440	13,990
경남	22	155	1,535,600	9,907
제주	3	10	116,880	11,688
계	306	1,721	26,936,496	15,652

축산업계 동향

시도별종계장현황 (총괄)

행정 구역	종계 장수	종 계 사 육 수											
		육 용 계			검 용 계			산 란 계			합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서울	2	1,941	110	2,051				4,520	355	4,875	6,461	465	6,926
부산	1	1,997	261	2,258							1,997	261	2,258
경기	81	308,388 (26,335)	22,363 (2,814)	330,751 (29,149)	16,292 (4,744)	764 (539)	17,056 (5,283)	180,333 (15,995)	9,389 (1,738)	189,722 (17,733)	505,013 (47,074)	32,516 (5,091)	537,529 (52,165)
강원	11	23,078	1,428	24,506				2,020	130	2,150	25,098	1,558	26,656
충북	9	21,328	1,141	22,469	1,005	60	1,065	-	-	-	22,333	1,201	23,534
충남	43	91,674 (5,954)	5,809 (425)	97,483 (6,379)	15,050	965	16,015	39,525	2,524	42,050	146,250 (5,954)	9,298 (425)	155,548 (6,379)
전북	57	58,066	3,321	61,387	11,543	726	12,269	41,884 (1,173)	2,499 (148)	44,383 (1,321)	111,493 (1,173)	6,546 (148)	118,039 (1,321)
전남	11	31,543	3,207	34,750	2,419	100	2,519	18,520	1,380	19,900	52,482	4,687	57,169
경북	48	55,215	4,279	59,494	7,024	636	7,660	33,237	3,049	36,286	95,476	7,964	103,440
경남	23	54,007	5,896	59,903	2,447	115	2,562	30,710	2,741	33,451	87,164	8,852	95,916
제주	2	3,478	326	3,804							3,478	326	3,804
계	288	650,715 (32,289)	48,141 (3,239)	698,856 (35,528)	55,780 (4,744)	3,366 (539)	59,146 (5,283)	350,750 (17,168)	22,067 (1,886)	372,817 (19,054)	1,054,245 (54,201)	73,674 (5,664)	1,130,819 (59,865)

() 内는 G. P. S 수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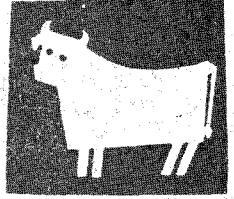
파리감소 96%

—계분에 치오카바마이드 사용해—

케이지 산란계사에서 계분에 치오카바마이드(Thio carbamide)라는 약품을 사용하여 파리를 96%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미국 콜럼비아에 있는 미조리대학 가금학과의 밴더퍼플리어(Joe Vandepopuliere)씨가 남다코다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가금의

날”행사에서 발표하였다.

치오카바마이드는 계분에 매주 1회 고르게 뿌려준다. 6000수 계사에서는 물16갤론에 치오카바마이드를 수당 0.37그램을, 12,000수 계사에서는 물20갤론에 수당0.37그램을 용해하여 분무하게 된다. 계분위에 분무되는 치오카바마이드는 다른 동물에게는 먹여서는 않된다. 성장부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계육을 이용한 육제품

개발에 관한 세미나

— KIST 주최로 전시회도 아울러

전시회도 아울러 가질 예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축산가공연구실 (실장이유방)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하여 계육을 이용한 육제품의 개발에 대한 세미나와 닭고기햄버거, 소세지를 비롯한 수종의 육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 4회의실에서 대한양계협회 후원으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와 전시회는 가공업계의 기술 및 경영진을 상대로 열리게 되는데 이는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 참여촉구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당일 전시품목은 다음과 같다.

닭고기햄버거, 닭고기살라미, 닭고기썰리지, 치킨롤, 닭고기전조육, 닭고기로우프, 닭고기너겟트 등.

업계 단신

○SF 과학사료공사(대표 신정재) : 새로운 현대식 공장의 완공에 따라 직원의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이 정주 영업부장

이 지난 11월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유수 동물약품 제조회사의 시설 및 운영현황 판매방법등을 시찰하고 귀국한데 이어 지난 11월29일 사민남 상무(약사)가 타이로신 에란코반으로 더 잘 알려진 Elanco회사의 초청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의 동물약품업체를 약 1개월 예정으로 시찰할 계획이다. 이번 시찰에서 사민남 상무는 동물약품 제조회사의 분석시설과, 신제품개발에 대한 것을 주로 관심있게 배워올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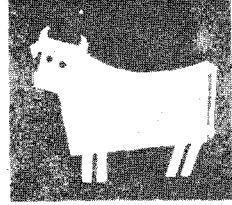
(이 정 주)



(강 홍 렬)

- 강홍렬(한국원종농장대표): 일본 이시히 안다슨 초청으로 약 1개월간 관련업체 견학차 지난 11월19일 출국.
- 홍성사료<주>(대표: 정태원) : 1일 8시간 가동 300톤 규모의 근대화공장 시운전 완전성공 79년 11월부터 본격적 생산개시.
- 대한사료<주>(대표: 이덕우) : 사세확장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4동 225에 의정부사무소 개설 ☎(의정부)4614
- 세진농산<주>(대표: 이세진) : 지난10월 미국의 아이오아 일리노이 미זור리, 네브라

축산업계 동향



스카, 사우디다코다주에서 종돈 50두를 수입 업체에 신규진출.

○진성가축약품상사(대표:조순연) : 삼성신약사 이대규상무가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가축약품도매상 개설

주소:서울시 영등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34의 1-2 ☎64-5953

○대주산업<주>(대표:정은섭) : 배합사료메이커 한국축산개발<주>이 79년 11월 1일부터 상호변경 전화번호는 종전과 동일

○김창수(전우성사료) : 지대, 약품제조및 도매등을 담당할 우성양행 개업

○광주부화장(대표:박종인) : 산란계바브 콕B-300V와 육용계 아나크에 이어 신춘부터 아바에리카도 분양예정.

○김영부(한국고-킹 영업부장) : 동물약품판매등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대전시 삼성2동 307번지에 금강상사를 개설하고 대표로 취임. ☎(대전) 3-3916.

(서울)28-1231

○천일곡산(대표:이상순) : 배합사료및 콘스타치등 곡물가공메이커인 천일곡산의 경영권이 지난 11월말斗山그룹으로 이양.

이 전

◇세원농산<주>(대표:고병환) : 낙농기구수입품 전시장및 사무실확장으로 서울시동대문구 면목동 198-2로 사무실이전

☎(435)0115~0119

전화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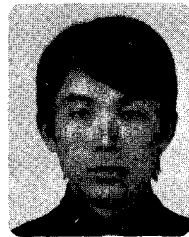
○삼양사 목표사료공장<주>(대표:김상하) : 12월 1일부로 (목포) (5)0131~5로 전화번호변경.

업계 인사

◎한국사료협회(회장:정태원) : 업무부에 김구현(전 인성물산)씨를 특채

◎과학축산 : 영업부장에 정청치씨를 승진 발령하고 영업부에 현 해(전 영육농산)씨와 수의사 이광중씨를 기용

◎광주부화장(대표:박종인) : 영업부에 이문희(전지산부화장영업부)씨를 기용



(이 문 희)

◎천호부화장(대표:이계조) : 영업부차장에 감호섭(전과학축산)씨를 기용

◎삼양사<주>(대표:이상하) : 사료축산부에 김진수(전 독립산업)씨를 기용.

◎한국고-킹 : 판매부장에 김형(전 이글케미칼)씨를 기용.